2026-07-09

Economy Brief

유가보다 국채 금리를 다시 주목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미군의 대이란 공격으로 WTI 가격이 다시 70달러 중반대로 급등함

다행히 채권시장을 제외하고 금융시장 반응은 이번 사태를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임.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재개는 없을 것으로 밝힘으로써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줌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될 여지는 잠재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도 중요하지만 다시 국채 금리를 주목해야 할 상황

유가가 다시 70달러 중반대로 반등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미국-이란간 협상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이틀째 이란 공습에 나섰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도 이어지면서 미국-이란 종전 협상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군의 이란 공습으로 그 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배럴당 68달러대까지 하락했던 WTI 가격은 미군의 이란 공습 이후 74달러대 수준으로 급등했다. 8일 장중에는 76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다. 당분간 국제유가 불안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미군의 이란 공습이 미국-이란 종전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다. 원유 공급은 매우 원활해질 것이다. 쉽게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아직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보여주었던 발언과 행보에 대해 금융시장이 일종의 노하우가 쌓여 있고 이번 사태가 협상을 깨기보다는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의 신경전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의 경우 군사공격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를 유지 중이고 주식시장은 역시 나스닥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지수별로 혼조를 보는 등 이란 사태에 발작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반도체 사이클을 두고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반등했다.

달러-원 환율의 반응도 주목된다. 고유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달러-원 환율의 경우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사의 6일자 보고서(SK하이닉스 ADR, 게임 체인저 역할 할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K하이닉스 ADR를 상장을 앞두고 달러 공급 확대 기대감이 달러-원 환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 사태보다는 수급 이슈에 달러-원 환율이 더욱 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은 이번 미국-이란간 군사 충돌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다만, 채권시장은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4.3%대까지 하락했던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재차 4.57%까지 급등하면서 미국-이란 전쟁이후 최고점(5월 19일, 4.6663%) 수준에 근접하는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차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될 여지는 충분: 다시 국채 금리를 주목

이번 미국-이란간 군사충돌이 단기 이슈로 끝날 여지는 크지만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지 혹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양측의 충돌이 빈발할 여지는 잠재해있다. 이란내에서도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와 공화당내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이란에 큰 양보를 하는 듯한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불안한 종전 협상 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유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채금리 수준이다. 6월 FOMC회의 의사록을 보면 우려보다는 매파적 목소리가 강하지 않았다. 금리를 인상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으며 모든(all) 참가자가 금리 동결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OMC회의 의사록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 주었음에도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 10년 국채 금리수준이 전고점(5월 19일, 4.6663%) 수준에 근접한 것은 금융시장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 시 또 다시 주식, 외환시장은 물론 금 등 여타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유가 불안 지속 시 국채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한 금융 및 자산시장의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림1. 유가 반등 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10년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달러화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 이슈로 급락한 달러-원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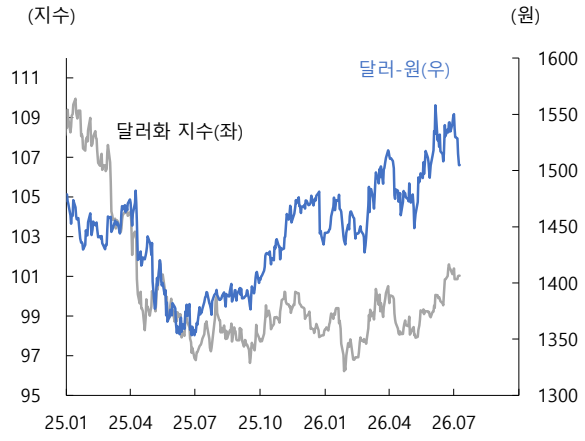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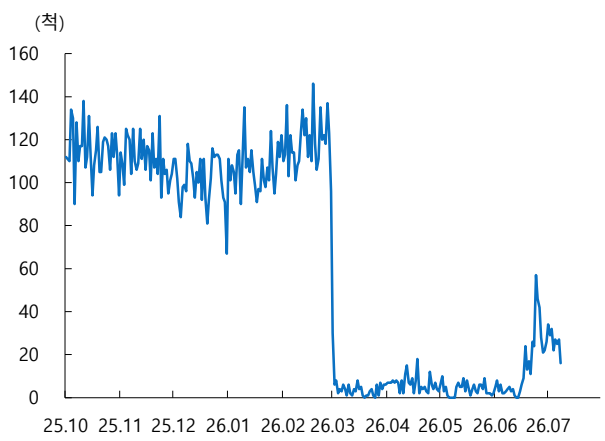


그림3.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건수는 다시 줄어들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